

"호숫길 함께 가꿔요"...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쓰담쓰담' 캠페인 펼쳐

등록 2025.09.23 10:15:43 | 수정 2025.09.23 15:55:47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22일 수완1저수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와 함께 저수지 둘레길을 가꾸는 친환경 실천 운동 '쓰담쓰담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지역 공공기관과 저수지 둘레길을 가꾸는 친환경 실천 운동 '쓰담쓰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쓰담쓰담'은 '쓰레기 담기'의 줄임말로 저수지 둘레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친환경 실천 운동이다.

공사 전남본부는 전남 광주 수완1저수지에서 직원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저수지 쓰담 쓰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대청결운동인 '대한민국 새장단' 캠페인 활동과 연계해 추진했다.

환경정화 활동에는 공공기관 ESG(환경·사회·투명경영) 실무협의체인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를 비롯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가 함께했다.

3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ESG 실무협의체는 올해 3월 구성됐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플리마켓(더 착한마켓) 운영,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등 다양한 ESG 활동을 함께 추진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오고 있다.

김재식 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은 "앞으로 더 많은 공공기관과 함께 쓰담쓰담 캠페인을 펼쳐 환경보호와 ESG 경영 실천을 동시에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